



강진 김영일



곡성 김광휘



구례 박진호



담양 박종영



무안 이기성



보성 안구일



순천/광양 김승호



순천/광양 황경석



여수 김석철

보성군 계단식 전통차농업 시스템 국가 농업유산 선정

농업자원의 가치성·주민의 참여 및 지방자치단체와 협력관계 우수



보성군은 '보성 계단식 전통차농업 시스템'이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주관하는 국가중요농업유산 제11호로 지정됐다고 11월 30일 밝혔다.

이번에 국가중요농업유산으로 선정된 보성 계단식 전통차농업시스템은 농업유산전문위원회의 서류심사와 현장조사, 전문위원회의를 거쳐 최종 결정되었다.

보성군은 2013년부터 2016년까지 국가중요농업유산 지정을 신청하였으나, 일부 차밭이 일제강점기에 조성되었다하여 안타깝게 지정되지 못했다. 이에 역사적 검증 자료를 수집하고 유물 등을 찾아 증거자료로 제시하는데 총력을 기울였으며, 보성 전통차 농업의 현장심사와 주민들의 증언, 학자들의 근거자료 등을 통하여 역사성을 입증하였다.

보성 차에 대한 역사적 기록은 세종실록지리지(1454), 신증동국여지승람(1530)에서 찾아볼 수 있다. 백제시대부터 보성 지역 귀족과 사원 중심으로 차 문화를 발전시켜 왔으며, 불교가 융성하였던 고려시대에는 다촌(茶村), 다소(茶所), 다원을 설치하여 공차(貢茶)를 실시했다. 이후 주민생계와 밀접한 관련을 맺으며 전통차 농업이 발전해 왔다.

고대부터 마을주변이나 사찰주변 경사지에 조성되어 전승되어온 차밭은 근대를 거치며 대량화와 산업화를 위해 지금의 모습으로 변화해 왔다. 우리 민족의 역사와 함께 보성 전통차 농업 시스템도 이끈 역사의 변동과정을 겪었지만, 명백한 역사와 전통을 지닌 우리의 농업유산이다.

보성은 우리나라 최고의 녹차 생산지로 전국 재배면적의 35%에 이르며 녹차로 인한 소득은 단위 면적당 소득이 쌀의 3배에 이를 정도로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가 크다. 자연경관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등고선을 따라 바다 물결을 닮은 계단식 차밭은 제주도, 경남 하동, 경남 사천 등의 차밭과 구분되는 특징이 있다. 이는 미국 CNN이 '세계의 놀라운 풍경 31'에 선정할 정도로 매우 아름답다. 사계절 모습이 달라 매년 7백만 명 이상이 찾는 대한민국 대표 관광지역이기도 하다.

이번 심사에서 농업자원의 가치성, 주민의 참여 및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관계가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어 국가중요농업유산으로 선정되었다.

보성군은 계단식 전통 차농업 유지에 필요한 기반시설 및 장비 지원을 통해 차 재배농가 및 관련 업체의 발전을 도모하고, 전통 차문화와 연계한 문화·체험 활동, 차관련 축제 및 박람회 등을 개최하여 지속적인 농업유산 관리를 위한 차산업 활성화에도 힘쓰고 있다.

또한, 2016~2018년까지 농촌 다원적 자원 활용사업 대상으로 선정되어 계단식 전통차밭 주변의 훼손된 구역을 우선적으로 복원하는 등 농업유산 정비사업을 추진해오고 있다.

주민들은 주제적인 농업유산의 관리자로서 주민토론회와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하고 선진지 견학을 하는 등 농업유산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

보성=안구일 기자

함평주민들 맞춤형복지 공유 위해 순천시 덕연동 방문

시민의 삶에 실질적 도움 되는 복지시책 벤치마킹



순천시 덕연동에 최근 함평군(함평읍·손불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30여명이 순천시의 다양한 복지시책을 벤치마킹하기 방문했다.

함평군 함평읍·손불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덕연동미중물보장협의체에서 전남 최초로 운영하고 있는 '미중물생장고(웨어푸드시스템)' 등 다양한 복지현장을 직접 보고자 이번 방문을 계획한 것으로 알려졌다.

덕연동은 미중물생장고 외에 내 마음의 산타, 덕연클리닉서비스, 덕연동행복케어 등 미중물보장협의체 위원들과 함께하고 있는 다양한 복지 사업을 소개하고 지역 내 어려운 이웃들에게 자원을 발굴 및 후원연계 과정과 성공사례를 공유했다.

박세영 함평읍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은 "덕연동미중물보장협의체에서 운영 중인 다양한 맞춤형복

지 프로그램을 배워갈 수 있어 뜻깊은 시간이었다. 역시 전남에서 유일하게 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순천시는 역시 다르구나 새삼 느꼈다"고 말했다.

한편 순천시 덕연동은 2016년 7월 맞춤형복지팀을 신설하고, 간호사와 복지사가 함께 어려운 가정을 찾아가 건강관리와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주민들의 건강을 상시적으로 체크할 수 있는 건강행복센터를 행정복지센터 안에 두어 시민의 삶과 행복 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순천=김승호 기자

순천시 종합민원실 '국민행복민원실' 선정 쾌거

행정안전부 주관 민원행정서비스 우수기관 표창

순천시 종합민원실이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하는 국민행복민원실로 선정되었다. 국민행복민원실은 전국 245개 지방자치단체를 비롯하여 세무서, 교육청 등을 대상으로 민원서비스 및 시설환경이 우수한 10개 기관을 선정한다. 순천시는 국민행복민원실 선정을 위하여 2017년부터 다양한 분야에서 노력해왔다.

순천시는 민원감동서비스를 위하여 특히, 사회적 약자를 위한 서비스에 총력을 기울였다. 청각장애인을 위한 수화 통역서비스를

제공하고 다문화 가정과 외국인을 위한 외국어 통역서비스도 실시하고 있다.

영어, 중국어, 일본어 3개 국어를 담당하는 직원을 배치하여 통역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민원실을 방문하는 민원인들이 보다 빠르고 정확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팀장급으로 구성된 민원안내도우미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시설 환경 개선으로는 유니버설 디자인을 도입, 종합민원실 내에 노약자·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좌석식 서류 작성대를 설치

하고 창구 안내관 등을 색상별로 분류하여 민원인의 시야를 확보하는 등 종합민원실 내 유니버설 디자인을 적극 도입하였다.

뿐만 아니라, 청사 1층 화장실에 자동출입문과 안심 비상벨을 설치하여 사회적 약자 방문 시 불편함이 없도록 민원인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는 순천시청 청사에 국한되지 않고 전 읍면동에 휠체어를 보급하여 장애인·노약자 등 거동이 불편한 사회적 약자의 편의 도모에 앞장섰다.

순천=황경석 기자

광양향토특산물 '죽필' 지상과 드라마 소품 사용

광양시는 대나무로 만든 '광양 죽필'이 SBS드라마 '황후의 품격'에서 황실 집무실에 소품으로 사용됐다고 밝혔다.

이번 광양죽필 소품 사용은 드라마 제작진이 대한제국시대에 가장 잘 맞는 소품을 찾던 중 광양의 특산물인 '죽필'이 제격이라는 드라마 작가의 요청에 의해 쓰여지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소품을 제작한 주인공은 광양읍에 거주하는 김선준(55세)씨로 컴퓨터입사학원을 운영하다 우연히 길에서 주운 대나무에 편죽을 쫓아 끼워 글을 쓰는 것이 계기가 돼 죽필을 만드는데 뛰어 들었다.

김 씨는 그동안 대나무의 골고 균음의 전통의 멋과 향기를 살려 죽필공예를 예술품으로 승화시켜

광양의 전통공예품을 세계적인 상품으로 개발하는데 큰 노력을 해왔다.

특히 25년 동안 죽필을 만들면서 전국관광기념품공모전에서 대통령상을 비롯해 총 5회의 수상을 받기도 했으며, 국내외 전시회도 11차례나 개최했다.

광양=김승호 기자

광양시, 제3회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 '대통령상'

차량 감합 사고 예방 '썩썩이 평동-카 사업' 선제적 대응 인정



광양시는 제3회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어린이 통학차량 감합사고 예방을 위한 '썩썩이 평동-카 사업'으로 대통령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인사혁신처 주최로 지난달 28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이번 경

진대회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적극행정 사례를 발굴해 확산하고, 각 기관에서 적극적으로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는 이번 심사에서 민·관의 적극적인 협업을 통해 시민이 원하는 정책을 발굴하고 문제를 해결함으

로써 사회적 가치를 실현한 부문에서 크게 인정받았다.

'썩썩이 평동-카 사업'은 차량 감합 사고가 발생 시 평동(비상구조벨)을 누르면 구조요청 메시지가 운전자, 보육교사, 학부모와 기관 PC로 전달되는 서비스를 말한다.

광양시는 지난 2월 광양시어린이보육재단, 전국민안정공동체운동본부, KT와 함께 지역 어린이집과 사립유치원의 12인승 이상 통학차량 170여 대에 단말기와 비상벨 설치를 완료하고, 유지관리에 들어가는 비용을 지원해 왔다.

특히 전국 지자체 최초로 추진한 '썩썩이 평동-카 사업'이 올 여름 전국적으로 큰 문제가 된 어린이 차량 감합 사고를 선제적으로 대응한 사례로 부각돼 전국적으로 주목을 받았다.

광양=황경석 기자

www.jepa.kr

전라남도비정규직노동센터를 운영했던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가 전라남도중소기업진흥원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새롭게 도약합니다!

▶ **중소기업진흥원은** 중소기업 성장지원으로 행복공동체 구현을 목표로 기업들의 매출증대가 고용창출을 낳는 선순환 경영환경 조성에 기여하는 전라남도 출연기관입니다.

주소 | 전남 무안군 삼향읍 오룡3길 2(전남도청 옆)



- 무료법률상담**
 - 무당해고·임금체불 등 비정규직 근로자 노동 상담
 - 중대 사안 관계기관 진정
 - 구제신청 지원 및 의견제출(노사·자문변호사)
 - 유관기관 연계를 통한 상담 무료 운영
- 취약근로자 권익보호·지원**
 - 근로조건 열악사업장 근로자 상담 및 법률지원
 - 감시단속적 근로자 근로조건 및 근무환경 개선 활동
 - 일용직 근로자 보호를 위한 임금체불 진정 상담 및 지원
- 최저임금·비정규직 차별신고센터 운영**
 - 중소기업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에게 대한 최저임금 위반사례 접수
 - 비정규직 근로자 상담을 통해 차별적 요소 확인 및 시정요청, 행정기관 법률구제 신청을 위한 서면작성 지원 및 법률 자문
- 노동법률교육**
 - 근로자 및 사용자 대상 노동법 및 노사관계관련 교육 실시
 - 비정규직에 대한 인식개선 및 적절한 인사관리방안 안내